

군산, 사랑의 온도 100도 눈앞 캠페인 1개월 만에 81% 달성

군산시가 연말연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위해 시작한 희망2021 나눔캠페인이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겨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유난히 추운 겨울을 맞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한 기부행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캠페인이 시작된지 1개월 만에 6억 7천 2백만원이 모금돼 목표액 8억 4천만원의 81%를 달성했으며 남은 기간동안 목표액 도달을 위해 나눔의 기쁨을 이어 나갈 계획이다. 모금에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 기업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282-0606)에 개설된 접수창구에 성금이나 성품을 기탁하면 된다. /군산=고병만 기자

정헌율 시장 '익산새만금 광역도시' 제안

정헌율 익산시장의 전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물류 중심의 '익산-새만금 도시'와 행정·생태 중심의 '전주권역' 광역도시를 제안했다.

지난 5일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북광역도시 구상을 조금 더 구체화 한 것으로 전북을 두 축으로 광역화하는 발전전략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정 시장은 7일 신년 비대면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광역도시 구상에 대한 질문에 '익산-새만금 도시' 광역도시 구상을 설명했다.

익산-새만금 도시는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을 아우르는 철도와 항만, 공항이 연계된 트라이앵글 클러스터로 동북아시아 물류 전진기지라는 발전 전략으로 풀이된다.

도지사 광역도시 구상계획에 구체성 담아 발표 물류·행정·생태 중심 전주권 발전 방안 제시

특히 정 시장은 익산과 군산, 김제, 부안에 새만금이 더해지면 동아시아 물류거점의 인구 110만이 넘는 광역도시가 형성되고 전주와 완주에 동부권 지역은 행정과 문화, 생태거점의 전주권 광역도시로 성장시켜 150만의 광역도시가 형성될 수 있다는 구체적 계획까지 덧붙였다.

정 시장은 이런 계획을 좀 더 세분화하고 구체화해 전북도에서 추진할 운영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익산은 이미 새만금 배후도시와 철도와 항만, 항공을 아우르

는 새만금권 발전계획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전북도가 제시한 광역도시로는 전체적인 발전을 꾀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새만금권과 전주권이라는 두 축이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익산새만금도시 메카시티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선 새만금권 시장, 군수 등의 대화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협조도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익산시가 내부적 계획을 만들어서 전북도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코로나 확진자 2명 발생

군산에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했다.

7일 백중현 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군산 129번, 군산 130번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군산 129번 확진자 A(20대)씨는 지난 3일 기침 등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 6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체를 채취해 7일 새벽 0시30분 양성판정을 받았다.

군산 130번 확진자 B(50대)씨는 광주시민으로 업무상 군산에 머물다 지난 5일 미열 등의 증상을 보였으며 지난 6일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7일 새벽 6시 양성판정을 받았다.

시는 이들 확진자의 방문지 CCTV를 확인해 소독을 완료하고 추가 접촉자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평가지표 보고회 개최

익산소방서(서장 전미희)는 "본서 2층 방호구조과 회의실에서 2020년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평가지표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표 관련 담당 소방공무원 20여명이 참석하여 현재 추진 중인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관련 각 부서별 평가에 대비하여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위하여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시설 화재안전관리 강화 ▲관계인 자율안전관리 가능 강화 ▲생활속 화재안전 기반 조성 ▲현장 대응력 강화 통한 국민생명 보호 등 5대 전략 23개 중점추진 과제 및 자체 특수시책 2건에 대한 그 간의 업무추진실적을 검토하고 향후 업무추진 방향을 강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중점 관리 지표와 부진 지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표달성을 위해 우수한 성과와 관리를 다짐했다.

전미희 익산소방서장은 "겨울철 기간 동안 철저한 지표 달성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문화 정착과 최상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전 직원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아열대작물 14종을 시범재배해 정상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다.

기후변화대응 아열대 신소득작물 도입

군산시, 만감류·바나나 등 농가재배 성공으로 가능성 확인

군산시농업기술센터는 기후 온난화에 따른 신소득작물을 발굴하기 위해 농가 시범하우스에 만감류와 바나나 등 아열대작물 14종을 시범재배해 정상적인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쌀,보리 등 식량작물 위주의 관행농업에서 탈피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지역 내 소비자 선택의 폭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최근 아열대작물인 만감류, 바나나, 구아바와 카사바, 참다래 등 신소득작물의 재배 시범사업과 지역 적응 시험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시범재배에 성공한 아열대과수는 바나나를 비롯한 남진해, 미니향, 세포미,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등 만

감류 13개 품종으로 껍질이 얇아 까먹기 쉽고 새콤달콤한 맛이 좋은 특성으로 감귤 수확이 끝나는 지난해 12월부터 5월까지 수확되는 품종들이다.

대아편 시설하우스에서 지난해부터 만감류를 재배하고 있는 김운태농가는 "가을에 수확된 바나나를 지역 로컬푸드에서 판매한 결과 수입 바나나보다 2~3배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이윤식, 환자식 등으로 인기가 많았다"며 "다양한 수입 과일을 마트 등에서 접할 수 있지만 식품의 안전성을 특히나 중시하는 요즘, 친환경으로 재배되는 열대·아열대 과일은 높은 가격에도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군산=고병만 기자

익산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검사 확대

집단감염 차단, 주1회 검사

익산시가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감염취약시설에 검사를 확대 실시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시는 최근 감염취약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급증함에 따라 지역 내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주1회로 확대해 실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일 어르신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6명을 대상으로 익산국가무형문화재통합전수관에서 시설별 자체 검체 채취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시설별 감염관리 방안과 개인보호구 착용, 탈의법, 검체채취 방법, 검체 포장법 등에 대해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짐에 따라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검사 주기를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해 코로나19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 12월 2차례에 걸쳐 고위험시설 113곳, 4,360여명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 개교 75주년 기념 역사사진전

익산역 서부통로 전시장서 68점 선보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는 '개교 75주년 기념 역사사진전(展)'을 1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익산역 서부통로 전시장에서 개최한다.

중앙도서관 기록물관리과와 LINC+사업단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전시는 2021년 5월 개교 75주년을 맞아 지난 75년 동안 익산시의 함께 호흡의 명문사학으로 성장한 원광대 발자취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5부로 구성된 전시는 1946년 설립된 원광대학교의 모태인 유일학림에서부터 2020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학의 75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기별로 주요한 사진과 설명으로 이루어졌다.

1부 '1924~1950 신웅별 원광의 태동, 유일학림'에는 1924년 원불교 창립에서부터 유일학림이 설립되는 과정을 담았으며, 2부 '1951~1971 참고육의 터전, 원광대학교의 탄생'에는 유일학림이 원광초급대학, 4년제 정규대학을 거쳐 종합대학 승격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담았다.

이어 3부 '1972~1986 사학 명문 원광대학교의 도약'에는 1971년 12월 종합대학 승격 이후 도약하는 대학의 변화를 표현하고, 4부 '1987~2002 지적검수 도의실천, 도덕대학의 전통 확립'은 1987년 민주화 이후 21세기 서막까지의 발전과정을 담았다.

마지막 5부 '2003~2020 공돌이 75년, 꽃피운 100년'에는 '사학 중심 글로벌

마인드 개벽대학'을 꿈꾸는 원광대의 미래 비전 달성을 향한 20여 년의 여정이 담겨있다.

특히, 이번 전시 사진 중에는 전시장소인 익산역과 익산시의 여제와 오를을 돌아볼 수 있는 사진 8점이 포함됐으며, 이를 통해 익산역의 전신이었다던 구 이리역 시절의 역사(驛舍)와 현재 정비·복원되기 이전의 미륵사지 옛 모습 등을 살펴볼 수 있다.

박맹수 총장은 "개교 75주년인 2021년은 개교 이래 40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현재 규모의 대학으로 발전하는 초석을 다진 숭산 박길진 초대 총장의 열반 35주기를 맞는 뜻깊은 해인 만큼 이번 전시를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을 재정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시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진전은 원광대학교 누리집(www.wku.ac.kr)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전화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